

## 서 평

Etienne Balibar and Immanuel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 Ambiguous Identities* (London: Verso, 1991), viii + 232 pp.

### 최 갑 수

본서는 두 저자가 1985-87년에 3번에 걸쳐 파리에 있는 '인간학연구소(Maison des Sciences de l'Homme)'에서 조직한 일련의 세미나의 산물이다. 하지만 본서는 공동저작의 형태를 띤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이미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본서가 1988년에 파리에서 출판된 불어본의 영역본이기는 하지만, 저자들이 각기 불어와 영어로 글을 썼던 만큼 불어본과 본서의 자격은 동등한 셈이다.

본서는 우선 크게 보아 '서구 맑스주의'의 진영에 속하면서도 서로 사뭇 다른 경향을 보이는 두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발리바는 알튀세(Louis Althusser)를 계승하는 '구조적' 맑스주의자로 유명하며, 월러스틴은 아프리카인류학에서 출발하여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영향 아래 거시적인 '세계체제론'을 주창한 역사사회학자이다. 후자가 과연 맑스주의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이제까지 맑스주의 전통에서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던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에 대한 역사사회적 분석은 그 자체로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기도 하다. 흥미롭게도 두 저자는 각기 '서문'과 '후기'에서 양자 사이에 보이는 합의점과 이견을 개진하는 친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기평가는 액면 그대로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양자의 견해차이를 아는 데는 도움이 된다.

먼저 지적할 점은 두 저자가 지적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종과 민족문제에 관한 두가지 대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이들에게 계급(class)은 말할 것도 없고 인종(race), 민족/국민(nation), 종족(ethnic group)은 무엇보다도 "역사적 구축물"이다.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는 역사적 형성물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러한 구축물을 종종 영속적이고 자연적인 실체로 그려내곤 하는 이른바 '원초주의적(primitive)' 해석'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형성물에 그러한 실체성을 부여한 역사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에게 그것은 바로 근대 자본주의에 특유한 시장구조와 계급관계의 발전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두와 성장 그리고 팽창이야말로, 무정형적이고 여러 선택 사이에서 "망설였던" 다양한 공동체에 일정한 방향과 내

1 Christophe Jaffrelot, "Les modèles explicatifs des nations et du nationalisme: revue critique", Gil Delannoï et P.-A. Taguieff (dir.), *Théories du nationalisme* (Paris: Kimé, 1991), pp. 154-161.

용을 부여한 힘의 원천인 것이다. 둘째, 두 저자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를 상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들이 보편주의를 “오랜 지적 전통의 절정”으로 보든지, 아니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특히 적합한 이데올로기”로 보든지 간에, 보편주의의 확산이 특수주의를 소멸시키기는 커녕 그것을 확대재생산시키며 그리하여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sexism)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들은 이를테면 역사적 형성과정의 내재적 논리를 강조하는 ‘민족형성(Nation-building)론’<sup>2</sup>과 같은 접근방식으로는 총체적 파악에 이를 수 없다고 여긴다. 내적 동인과 외부적 제약과 한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와 긴장—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론적 분석의 기본틀이다.

이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논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우선 월러스틴으로부터 출발해 보자. 발리바 자신이 인정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는 국민적 틀(민족국가의 틀)과 전지구적 틀 속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월러스틴에 따르면<sup>3</sup>, 역사적 “자본주의와 세계경제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하지만 ‘근대 세계경제’는 단일한 정치적 주권의 지배를 받는 전근대적인 세계체제, 즉 세계제국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교역과 시장관계의 망을 통해 전세계에 단일한 분업체제를 설정하면서 다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가간체제(interstate system)’를 정치적 상부구조로 갖는다. 분업체제와 국제질서의 결합은 세계경제를 중심과 주변 또는 半주변으로 편성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들의 계서제를 만들어 낸다.

바로 이 계서제와 더불어 ‘민중(peoplehood)’의 세가지 근대적 범주, ‘과거성(pastness)’의 세가지 규정방식이 나타난다. 인종(생물학적으로 연속적인 집단), 민족(역사적인 사회정치집단), 종족(문화적 집단)이 그것이다. 월러스틴의 장점은 이 세가지 범주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세가지 기본적인 구조적 특징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의 개념은 세계경제 안에서 분업의 기본축, 즉 중심-주변의 대립관계와 관련된다. ‘민족’의 개념은 이 역사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 즉 국가간체제를 형성하고 그것에서 비롯한 주권국가와 관련된다. ‘종족’의 개념은 가계(household)구조, 즉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노동력의 큰 부분을 비임금노동상태로 유지시키는 가계구조의 설정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 세가지 현상은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상대적인 의미에서 독립적이다. 인종주의는 ‘부르주아국민’과 ‘프롤레타리아국민’ 사이의 국제적인 계급관계의 결과물이다. 민족주의는 전지구적인 분업체제에서의 계서제적인 위치를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려는 국민들간의 투쟁을 말한다. ‘대내적’ 인종주의에 대해 월러스틴은 노동력의 “종족화(ethnicization)”로 설명한다.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잉여가치의 절대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편으로 국가는 영역 내에서 “하나의 민족과 여러 종족을 갖는 경향이 있고” 그리하여 어떤 소수민족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를 덜 받게 마련이며, 다른 한편으

2 Cf. Charles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75)

3 간편한 안내로는 월러스틴, 『역사적 자본주의 / 자본주의문명』 (나종일 옮김, 창작과비평사); Wallerstein,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the Capitalist World System: Concepts for Comparative Analysis”,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4 (1974), pp. 387-415이 적절하다.

로 ‘牟프롤레타리아 가게’에서는 그 가족의 성원 일부가( 주로 여성이지만) 비임금 가사노동을 떠맡음으로써 그 성원 전체의 노동량 가운데 오직 일부만이 생산노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는 오랜 외국인혐오증이나 남성우월주의의 잔재가 아니라 자본주의와 유기적으로 관련되며, 따라서 오히려 그것의 진전에 따라 더욱 증폭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견해는 또한 최근 유럽의 통합을 ‘초국민적 민족주의’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바꿔 말하면 이전의 국민국가가 했던 역할을 새로운 유럽공동체가 떠맡으리라는 예상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구조적 틀(이런 면에서 윌러스틴은 종종 비판주의자로 보인다)은 왜 노동자층이 상호 양립하기 어려운 여러 특수주의 사이에서 그렇게도 쉽사리 그리고 재빠르게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 틀이 부여하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민족이나 인종 심지어 계급은 피압박민에게 도피처의 역할을 하며” 따라서 “만일 한 보호처가 마땅치 않게 된다면, 그들은 즉각 다른 보호처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리바가 보기에 그러한 윌러스틴의 논의는 ‘경제주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상 발리바의 논지는 어법의 난해함과 용어의 특수함 때문에 ‘해독하기’가 매우 어렵다. 평자가 이해하는 한에서 정리해 보자. 발리바는 세계체제론이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한다. 정통맑스주의의 전통에서 경제주의란 생산력의 발전을 역사적 변화의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는 입장을 말한다. 세계체제론은 그러한 결정론에 대해 “자본주의적 축적과 그 모순의 변증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생산력에 대해 생산의 사회적 관계가 우월함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윌러스틴은 오히려 경제주의의 비판자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국가형성의 과정, 헤게모니와 계급동맹의 문제를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시키으로써 맑스가 그렇게도 힘주어 비판한 “자유주의적 이중주의(국가/시민사회, 정치/경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자본주의적 사회구성의 토대”로서 (국제적인) 분업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역사적 집합체를 결합시키는 요인이 ‘비경제적’인 사회적 관계의 복합체”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단지 세계체제라는 외연적 한계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운동과 충돌의 특성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리바는 민족의 이론적 규정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세계체제만이 유일한 실질적 사회구성인가, 아니면 민족/국민 그 자체도 하나의 사회구성인가?<sup>4</sup> 그에게 민족이란 한편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경제적, 정치적 ‘하위단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그 자체가 독자적인 하나의 사회적 단위이다. “민족국가의 형성을 설명해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수한’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계급투쟁의 구체적 배치형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종주의 역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규정하는 ‘계

4 예컨대 Anthony Giddens가 *The Nation-State and Violenc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5), pp. 161-171에서 가한 비판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5 Tony Andreani, “Racisme/nationalisme”, *Actuel Marx*, n° 10 (1991), p. 202.

급구조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계급투쟁에 내재한 정치적 소외의 한 특정한 형태인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발리바는 윌러스틴이 주장하는 '세계부르주아지(World Bourgeoisie)'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다. 발리바가 역사적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부르주아국민'과 '프롤레타리아국민' 사이의 양극화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는 단지 이윤의 축적 (또는 생산적 투자)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착취란 세계체제에서 중심과 주변 사이의 임금의 차이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의 양태를 결정하는 국민국가의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장이 바로 민족국가이며, 따라서 부르주아지는 보편적 형태가 아니라 민족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듯 윌러스틴과 발리바는 개념의 기본적인 규정으로부터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라는 역사적 현상의 의미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론적 논의의 여러 단계에서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자가 보기에 그것은 근본적인 대립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윌러스틴이 분석의 거시적인 틀을 제공했다면, 발리바는 미시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주의 및 인종주의에 대한 맑스주의해석의 전통에서 본서가 갖는 의의는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발리바의 자기평가를 직접 들어보자. "여러 국민적 단위가 일정 시기에 세계경제의 전지구적 구조에서 행하는 역할의 결과물로서 중심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들은 주변에 대한 중심의 지배에 봉사하기 위한 경쟁적인 도구로서 서로 대립하여 형성되었다. 이러한 지적은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맑스, 특히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의 '이상적' 자본주의를, 제국주의라는 철이른 현상과 전쟁과 식민화의 절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역사적 자본주의'로 대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민족주의를 자본가계급의 고유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면서 그것을 호도하는 도구적 이데올로기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맑스주의해석이 유지되면서 그것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조감하려는 야심적인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가 과연 구체적인 연구와 작업의 현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세계체제론적인 시각과 민족국가적인 접근의 접점을 단지 이론의 구성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확인하고 재구성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는 이론이 설득력을 지닐 최소한의 조건인 것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작업이 양 저자의 몫이 아님은 물론이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Tel: 880-6306(O), 525-4943(H)